

탄소복합체 물탱크 소방차 실증 착수

중기부도, 국내 최초 소방차용 탄소복합체 물탱크 제작·검증 실시... 가볍고 강도 높아·기동력 향상·화재 진압시 유리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는 탄소복합체 소화수탱크를 적용한 실증용 소방차를 제작해 실 운행실증 통해 안전성 검증을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북은 지난 2020년 8월 중기부로부터 '전북 탄소복합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총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1년 10월 수소이송용기 안전성 실증 착수를 시작으로 22년 1월 소방차 물탱크, 22년 4월 어선 실증 착수를 통해 올 11월에 모든 과제의 실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기존 소방차에 적용된 물탱크 재질에 대한 규제를 해소, 화재 시 충분한 용수량 확보를 위한으로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됐다.

현재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기준'

에 따르면, 소방차용 탱크 제조 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유리강화플라스틱(GRP)은 사용가능하나 탄소복합체는 사용할 수 없어, 탄소복합체 소방차용 탱크의 제작 및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탄소복합체로 만들면 가볍고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기존 물탱크 대비 용량 40% 증대와 기동력이 향상(출동량 감소)해 화재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실증용 소방차는 탄소복합체의 성능을 시험·검증하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물탱크가 노출되는 구조로 만들었으며, 소화수 탱크 검사 필수 항목 외에 소방관들이 우려하는 식수의 적합성, 복합체의 균열발생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운행실증은 군산 새만금주행시험장에서 올해 3월까지 진행되며,

물탱크 필수검사와 병행해 차량의 전복 안정성 확인을 위한 최대 경사각 안전검사와 10.000km 주행을 통한 신뢰성 검증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국내 소방서 협조를 통해 실제 소방 현장에서 안정성 검증 및 화재 시나리오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KFI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탄소복합체 소화수 탱크에 관한 규제가 해소된다면, 소방물탱크차 등 다양한 소방차 탱크에 탄소복합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손실을 지극히 가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소화수 탱크가 국산 탄소섬유로 제작된 만큼 상용화 시, 그간 해외기업에 집중됐던 국내 탄소섬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국내 탄소산업과 특정차 산업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에, 사업 완료 후 신속한 제품 상용화에 노력하는 한편, 소방펌프차 뿐만 아니라, 소방물탱크차 등 다양한 소방차에도 탄소복합체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기관·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장은 "탄소복합체를 적용한 소화수 물탱크가 개발되면서 소방특장차 제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소방차 물탱크 재질에 대한 규제가 해소된다면 탄소산업과 특정차산업이 주력인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소방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아름다운 선거61초 영화제' 공모

전북선관위문화콘텐츠연구소 '시네추추', 자유형식 영상 공모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 홍보·유권자 관심 유도 목적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연구소 시네추추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아름다운 선거61초영화제'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61초 초단편 영상을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6월 1일)을 알리고 선거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작품은 참여, 공정, 화합, 희망 등 아름다운 선거의 모습을 61초 이내의 숏폼,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 자유 형식의 영상

으로 제작해 응모기간 안에 영화제 홈페이지(www.be61ff.kr)에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품은 4월 첫째 주에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구분해 총 28편을 선정해 발표하고, 최고 500만원, 총 1.5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 선거61초영화제' 공식홈페이지(www.be61ff.kr)를 참고하거나, 063-253-4045로 전화하면 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선거와 영화가 만나는 특별한 유권자 참여 이벤트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시·군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회의 개최

전북 생생마을 활성화 의기투합... 생생마을만들기 도 신규사업·시군 사업계획 공유

전북도(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24일 전북삼라코깍마켓 세미나실에서 14개 시·군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개최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에서 마을공동체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 현장 중심의 실천조직이다.

올해부터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전담 조직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 마을사업 컨설팅, ▲ 주민 역량강화 교육, ▲ 현장 전문가 발굴·유치, ▲ 마을소식지 발간, 축제 등 현장발착형 지원 활동으로,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조력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풀뿌리 주민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번 센터장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농촌 사회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 사업 등 각종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현장실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2022년 전북 생생마을 활성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는 기존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한 도농힐링 프로그램 개발과 특화마을(치유·관광·귀촌 등) 육성,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력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시군 센터장은 2022년도 시군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을 공유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도시민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장은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우 많은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해결하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올해에는 농촌현장활동가 조직이 농촌지역 활력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자립기간 연장에 힘 보태달 것"

김윤덕 의원, 원광모자원 방문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장인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24일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한울안 원광모자원'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광모자원은 한부모가정으로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은 3-5년 기간 동안 무료 주거공간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서로 돕고 의지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다.

원광모자원 조영태 원장은 "저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기초생활수급 한부

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3~5년의 생활 기간을 5~7년 정도로 늘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에서는 지역에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 80여 명에게 무료로 생필품을 제공하는 푸드마켓 운영에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지만, 운영 인력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했다.

김윤덕 의원은 "원광모자원의 자립기간 연장에 힘을 보태고 전주시 등과 협의를 통해 인력 문제 등 운영 애로사항에 관심을 갖고 개선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건설현장 649개소 긴급 안전점검... 내달 7일까지

기동 등 주요 구조부 안정성·콘크리트 양생 품질관리 등

전북도가 최근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건설현장을 긴급 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649개소로 앞서 점검한 민간아파트 공사현장을 제외한 도내 1억 원 이상 하천, 도로, 건축 등 공사 현장이다.

점검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이다.

도는 지난 21일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사회재난과, 공안화재과, 수산정책과 등 9개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전점검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안전점검 실시요령 및

방법,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방안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도와 시, 군에서 건설현장 점검시 현장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 기동,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주요 구조부에 사용된 자재·부품의 적정성, ▲거푸집·비계·동바리 등 가설 구조물의 설치·관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운영관리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점검 사항 등이다.

도는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점검반을 구성한다.

또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공사현장 649개소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행안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합동 표본점검을 2월 중 실시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은 예산 확보 후 조치 완료 시까지 추후 관리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건설현장에는 사소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부주의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도내 건설현장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NGO 선정 국감

우수의원 선정

민주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

신 의원은 이로써 21대 국회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시민·사회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신영대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김범준 대표로부터 상생협력 방안 마련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사업 오류' 등의 문제를 바로잡고 ▲물류대란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확충'과 ▲유명무실 납품대금 조정협약 제도에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을 반영한 질의가 높게 평가받았다.

신 의원은 ▲8,000억원에 사들인 석유회사를 28억원에 헐값 매각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도 역대 연봉자는 2016년 5%에서 2020년 20%까지 상승한 석유공사의 방만 경영 문제 ▲호주 LNG사업에 4조원 넘게 투자했지만, 고작 5,900억원 회수한 가스공사의 문제점 등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던 해외자원교 사업의 결과를 파헤치고 출구전략 및 경영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신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사업인 K-RE100의 참여를 저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M&A 실적이 연간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문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령이 이원화되어 부실하게 운영·관리되는 문제 등 산업과 관련한 이해도 높은 정책질의를 펼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호상 기자



전북대병원, 전공의 병원 평가

'가장 좋은 수련병원'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전공의가 직접 뽑은 가장 좋은 수련병원에 선정됐다.

24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최근 공개한 '2021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 전북대병원이 중대형병원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대전협이 지난해 8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97개 수련병원의 3,158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북대병원은 교육환경 1위, 안전 2위, 급여 3위 등 5개 평가항목 모두 상위권에 기록되면서 중대형병원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 조사가 의미미한 이유는 전공의가 직접 뽑은 것으로 수련환경 조사결과와 전공의 확보가 비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 대형병원 출립현상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대학병원들에서 전공의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북대병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최근 2년 연속 정원 100%를 충원했다.

/최대희 기자

"조직구성·예산편성 권한 명문화"

전북 시군의회의장협,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시진)가 24일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 나섰다.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의회의 조직구성 권과 예산편성권은 그대로 집행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 전북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 후 지방의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대전환을 맞이했으나 의회 위상 정립의 길은 안갯길만 한 상황"이라며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윤성 기자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명실상부 지방정부를 견제하며 균형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법'처럼 조직구성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강동화 전주시·군의회의장협의회(전주시의회)는 연초부터 이어진 각 시·군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근거와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은 과거 자치단체장에 있던 의회 사무직원인 대한 인사권 한을 의장으로 이관했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 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윤성 기자



박영기 교수,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정부는 지난 23일 박영기 전북대 교수를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박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수자원학회 운영부회장,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위원,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수자원 분야 전문가이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는 등 새만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밝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영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국무총리와 함께 새만금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민주도당 남·임·순 지역위, 대선 필승 결의

더불어민주당 남임순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지난 22일 남원농협 고추자점 대강당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단원만 입장해 진행됐으며, 행사에는 김윤덕(선대위 공동수석본부장) 의원, 박희승 상임고문, 각 지역 전·현직 시도 의원, 도당관계자 등 200여명의 단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대회장에 얼굴에 맺힐 땀이 역보는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하여 높아지고 있는 2030세대의 정치 참여 의식을 볼 수 있었다.

남임순 지역 선대위 앙규상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인사말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김성주 도당위원장 과 안호영(완주, 무주, 진안, 장수) 의원의 축하 인사말은 영상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역 선대위 총괄본부장 4인(한완수, 이정민, 최영일, 강용구 도의원)은 "우리지역이 전국 최다 득표율로 승리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준비하자"고 호소했다.

/남원=김기우 기자